



한국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적응* - Q 방법론적 접근 -

신혜숙¹⁾

1)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동서간호학연구소

A Study on the Life Adjustment of Widowed Elderly Women in Korea* - A Q-Methodological Approach -

Shin, Hye Sook¹⁾

1) Associate Professor,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East-West Nursing Research Institute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types of life adjustment of widowed elderly women in Korea. **Methods:** The research design was a Q-Methodological Approach. Thirty selected Q-statements from 32 subjects were classified into a shape of normal distribution using a 7 point scale.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a QUANL PC program. **Results:** Three types of life adjustment were identified. Type I is the independent type: overcome the reality. Type II is the abandonment type: deny the reality. Type III is the accommodation type: accept the reality. **Conclusion:**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different approaches to the quality of life for widowed elderly women in Korea are recommended based on the three types of life adjustment.

Key words : Adjustment, Elderly, Women

서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수명 연장 및 출산율 감소 등으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04년 8.7%, 2006년 9.5%가 되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에서 2019년 14.4%의 고령인구를 가진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인의 약 2/3가 여성노인이며, 남성노인에 비하여 독거의 비율이 높고(5.9% 대 24.3%), 신체적 의존도가 높고(장기요양보호가 필요한 대상의 비율: 26.4% 대 56.8%), 저소득층의 비율이 높으며(3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 비율: 20.5% 대 30.1%), 우울증상 경험율(36.8% 대 46.6%)이 높은 실정이다(Korea National

주요어 : 생활적응, 독거 여성노인

* 이 연구는 2007년도 경희대학교 연구비지원에 의한 결과임(KHU-20070636).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Kyung Hee University Research Fund in 2007(KHU-20070636).

투고일: 2007년 8월 13일 심사완료일: 2007년 9월 24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hin, Hye Sook

College of Nursing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1 Hoegi-Dong, Dongdaemun-gu, Seoul 130-701, Korea
Tel: 82-2-961-9143 E-mail: suksh@khu.ac.kr

Statistical Office, 2006).

특히 독거노인, 여성노인, 농촌노인은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삶의 질의 수준이 낮아 특별한 사회적 관심이 요구되는 하위집단을 위한 특화된 정책마련이 필요하며, 노인을 구성하는 다양한 하위집단 중 정책적 관심이 요구되는 집단으로 지적되고 있고, UN의 「마드리드 고령화국제행동계획」은 여성노인과 농촌노인이 처해있는 불리한 환경과 낮은 수준의 삶의 질에 비추어볼 때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집단임을 강조한 바 있다(Cho, K. W., 2002; Yoo, 2005).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의 비율은 1990년의 8.9%에서 2000년대에 16.2%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독거 노인의 수는 80만 명으로, 2020년에는 1000만명이 65세 이상으로 그 중에 20% 정도인 200만명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으로 추정하고 있다(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80이 넘는 홀로 사는 할머니가 연탄불을 갈다 쓰러져 세상을 떠났다는 것과 70대 노부부가 병수발에 지쳐 자살을 했다는 기사며, 또 얼마 전에는 독거노인이 홀로 살다가 굶어서인지 얼어서 죽었는지도 모르나 뼈만 남은 시신으로 일년 후에 발견되었다는 우울한 기사들을 보면서, 이처럼 노년기에 나타나는 역할상실, 능력감퇴, 사회적 접촉의 감소와 고립 등에 대한 원충시대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가족 또는 배우자가 없다는 점에서 독거 노인에게 특별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여러 가지 사회문화적인 요인으로 인해 노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독거노인이야말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집단으로 보고, 본 연구에서는 독거 여성노인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게 되었다.

그동안 독거 여성노인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사회복지학적 입장에서 접근(생활실태, 복지요구, 복지적 대안)하였기 때문에 양적, 기술적 연구에 그치고 있으며, 독거 여성노인의 삶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질적인 접근의 연구는 부족하다고 보고되어왔다(Jung & Ha, 1999; Kang, 2003; Lee, 2006; Lee, 2002; Park & Im, 1991, Poter, 2005).

한편 최근까지의 우리나라에서 노인의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노인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에 따른 생활만족도에 대한 기술연구에 초점을 두어왔다(Cho, K. W., 2002; Kim, Lee, & Jung, 2000; Kim & Park, 2000; Lee, 2004). 본 연구에서는 독거 여성노인이 삶을 살아가면서 홀로됨의 새로운 변화에서 어떻게 생활에 적응하고 있는지를 탐색하는 그들의 주관적인 경험 유형을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즉, 서양적 가치관과 개념에 기초된 양적 측정도구에 의한 지금까지의 독거 여성노인에 대한 연구에서 탈피하여 Q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양적, 질적 접근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대상자의 주관성 관점이라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접근으로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적응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국 독거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그들의 생활적응 유형과 특성을 밝히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한국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적응 유형은 어떠한가?
- 한국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적응 유형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용어의 정의

독거 여성노인 : 배우자 및 친족, 비친족 중 누구하고도 함께 거주하거나 가계를 함께 하지 않는 단독세대, 또는 그 상태에 있는 노인"을 의미하며(Kim & Park, 2000), 본 연구에서의 독거 여성노인은 자녀 및 친척 등과 동거하지 않고 혼자서 만 1년 이상을 독립된 가구형태로 생활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의 여성노인을 말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적응에 대한 주관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Q-방법론을 적용한 연구이다.

Q-표본 구성(Q-sample)

독거 여성노인들의 현재 생활적응 상태를 기술하는 문항을 작성하기 위해 독거 여성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 감정, 견해, 가치관 그리고 행동 특성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문항 수집을 통한 concourse 추출을 위해 전문서적과 정기간행물, 매스컴 보도자료, 인터넷 검색 등을 분석하였고, 전문가 집단과의 토의 및 세미나 자료와 K 대학 노인전문간호사 과정 대학원생의 의견 등을 참고로 하였다. 또한 노인전문간호사 과정을 지도하는 교수와 독거 여성노인 그리고 일반인 등 총 10인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문항을 수집하였다. 총 315개의 문항(Q-population)을 수집하였으며, 이들 Q 모집단에서 Q표본을 선정하기 위해 의미가 중복되는 문장은 삭제하고, 유사한 의미를 가진 것끼리 배열한 후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범주화된 문항들은 독거 여성노인들의 생활적응 상태를 잘 들어내도록 문항의 속성상 긍정적, 부정적, 그리고 중립적인 특성을 갖도록 균형을 맞추어 조정하였다. 최종적으

로 주제에 대한 대표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되는 30개의 진술문이 Q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연구 대상(P-sample)

Q-방법론은 개인 간의 차이가 아니라 개인의 의미성 또는 중요성의 차이를 다루는 주관성을 강조하는 질적 조사연구이며 소표본 이론(small-sample doctrine)에 근거하므로(Stephenson, 1982), 본 연구의 P-표본은 한국 독거 여성노인 중에서 본 연구에 참여를 동의한 총 32명이며, 평균 연령은 72.4세이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사전조사 실시 전에 연구목적, 연구진행절차, 위험요인, 혜택과 보상, 신분보장, 사생활 보호, 자료보호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의 자발적인 참여 동의를 받았다. 연구 종료 후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에만 사용할 것과 연구결과 내용은 필요에 따라 대상자에게 확인과정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2년간 보관 후 폐기할 것을 약속하고, 가능한 설문자료는 기호나 숫자로 표기하여 익명으로 처리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Q-sorting

Q 표본으로 선정된 30개의 진술문을 8cm X 7cm 크기의 카드 형태로 제작하여 Forced Q-sorting 방법으로 실시하여 <Table 1>와 같이 정해진 매수대로 카드를 분류하도록 하였다. 즉, 독거 여성노인은 카드에 적힌 진술문을 이해하고 자신의 견해에 부합하는 정도에 따라 “매우 그렇다”(+3)로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3)에 이르기까지 정해진 매수대로 카드를 분류하였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가 분류하는 카드의 번호를 기록지에 표기하고 카드의 분류가 끝난 후 “매우 그렇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에 분류된 각 3장의 카드에 대해 심층면담을 통해 그 이유를 메모하였다.

<Table 1> Distribution of Q-sort

	Disagree			Agree			
	-3	-2	-1	0	+1	+2	+3
Score	-3	-2	-1	0	+1	+2	+3
No. of card	3	4	5	6	5	4	3

자료 분석

32개의 Q-sort 자료에 대해 각 진술문에 부여된 +3부터 -3까지의 점수를 7점에서 1점으로 환산하여 데이터 파일을 작성하였다. PC용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인자분석법(principle compon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igen값 1.0이상

을 기준으로 이상적인 요인의 수를 산출하고, Q 요인분석 결과 발견된 유형에 대해 각 유형의 표준점수, 타유형과의 표준점수 차이, 각 유형을 대표하는 대상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면담 자료 등을 참고로 유형의 특성을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Q 요인분석 결과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적응을 설명하는 세 개의 유형을 발견하였다. 이들은 전체 변량의 39.6%를 설명하고 있으며, 각 유형의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24.4%, 7.7%, 7.5%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로 아이겐값은 각각 7.79, 2.46, 2.40이었으며<Table 2>, 제 1유형에 16명, 제 2 유형에 8명, 제 3유형에는 8명이 해당되었다. 세 유형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이 유형 1, 2, 3,간에 비교적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Eigen value, variance, and cumulative percentage

	Type 1	Type 2	Type 3
Eigenvalues	7.7979	2.4653	2.4035
Variance(%)	.2437	.0770	.0751
Cumulative	.2437	.3207	.3958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Types

Type	1	2	3
1	1.000	.396	.379
2	.396	1.000	.274
3	.379	.274	1.000

유형 1

이 유형의 독거 여성노인들은 남편과의 사별로 인해 주로 일찍이 독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독거생활 기간은 평균 16년으로 이 유형에 속하는 16명의 독거 여성노인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나이는 평균 74세이며, 세 유형중 독거생활을 한 지 가장 오래 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Table 4>. 또한 자녀나 친척과 지역적으로 가까이 있거나 잦은 접촉을 하며 자녀와의 연대관계가 긍정적인 편이었다. 생활비는 자비 혹은 정부보조금을 통해 마련하는 상태로서 요즘 들어 경제적 문제 때문에 혼자 살아가는 데 불편함을 대부분 호소하고 있었다.

‘몸이 아플 때가 가장 서글프다’, ‘너무 오래 살까봐 걱정이 다’, ‘자꾸 잊어버리고 깜박거리는 기억력에 대해 서글픈 마음이 든다’, ‘갈수록 생각만 많아져 충분한 수면을 못하는 편이다’, ‘경제적 문제로 혼자 살아가는 데 불편하다’ 등 독거생활이 긴 만큼 현재 생활에 적응은 되어 있지만, 홀로 늙어 감으

<Table 4> Factor weights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r P-samples

Type	Subject number	Factor weights	Age	Religion	Education	Marriage	Duration (years)	Numbers of children	Health status	
1	1	.7500	71	Yes	Elementary	Bereavement	14	1	Moderate	
	2	1.3712	77	Yes	Elementary	Bereavement	20	-	Poor	
	3	.7740	80	Yes	Middle	Bereavement	39	-	Poor	
	4	.9413	78	Yes	Elementary	Bereavement	10	5	Good	
	9	2.1062	84	Yes	Elementary	Bereavement	24	2	Good	
	10	.6628	76	Yes	Elementary	Bereavement	5	3	Good	
	11	.5310	72	Yes	Elementary	Unmarried	11	-	Moderate	
	12	.8460	67	No	Elementary	Divorce	10	4	Good	
	14	.9704	77	No	None	Bereavement	35	-	Poor	
	15	.2993	63	No	College	Bereavement	8	10	Moderate	
	17	.8581	76	Yes	Middle	Bereavement	15	1	Poor	
	19	.4110	81	No	High	Bereavement	26	1	Moderate	
	22	1.6262	70	Yes	Elementary	Bereavement	15	2	Good	
	25	.7570	70	Yes	Elementary	Bereavement	3	2	Moderate	
	29	2.4242	71	Yes	Elementary	Bereavement	21	3	Moderate	
	31	.9904	72	Yes	Middle	Bereavement	12	5	Moderate	
	2	6	1.0069	76	No	Elementary	Divorce	18	3	Poor
		7	.1088	75	No	Elementary	Bereavement	5	3	Moderate
		8	.6851	60	No	None	Bereavement	7	-	Poor
13		.4894	65	No	None	Bereavement	5	2	Poor	
18		.2399	75	Yes	Elementary	Divorce	18	-	Poor	
20		.7324	68	Yes	Elementary	Bereavement	7	-	Poor	
27		1.1374	68	Yes	Elementary	Bereavement	4	3	Poor	
28		2.1872	63	No	None	Divorce	15	5	Poor	
3		5	.3193	72	Yes	Elementary	Unmarried	25	-	Moderate
	16	.8704	65	Yes	High	Bereavement	4	1	Poor	
	21	1.0247	72	Yes	Elementary	Bereavement	10	1	Moderate	
	23	.3042	77	Yes	Elementary	Bereavement	6	6	Moderate	
	24	.5091	70	Yes	Middle	Divorce	12	-	Good	
	26	.5215	72	No	None	Bereavement	3	5	Good	
	30	1.1975	77	Yes	None	Bereavement	19	1	Poor	
	32	1.0154	78	Yes	Elementary	Bereavement	7	4	Good	

로 인해 나타나는 불편감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자식이나 주변 사람의 부담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마음이 강하여 스스로 자립하려고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 적극적인 자세를 지니고 있다. ‘약이라도 사먹고 내 몸은 내가 소중하게 관리한다’면서 현실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자신 스스로의 관리에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다<Table 5>.

제 1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은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중 가장 동의한 항목을 보면 ‘평소 닥쳐올 죽음에 대해 준비하며 사는 편이다’(Z값 차이=1.57), ‘경제적 문제로 혼자 살아가는 데 불편하다’(Z값 차이=1.48), ‘어려움에 처해 있는 친척을 위로해 주고 의논 상대가 되어준다’(Z값 차이=1.01)이었다. 타 유형에 비해 강한 반대의 의견을 보인 항목으로는 ‘가족이나 친척이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Z값 차이=-2.24), ‘가족과 친척에게 걱정만 끼치는 한심한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Z값 차이=-2.05), ‘할때 소리가 제일 듣기 싫다’(Z

값 차이=-1.27),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었지만 없다’(Z값 차이=-1.02)이었다<Table 6>.

유형1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자 1의 중치가 높은 29번 연구대상자를 중심으로 Q-sorting 당시 면담 및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71세인 독거 여성노인은 남편과 사별한 지 38년이 되었고, 독거 생활을 한 지는 21년째이다. 자녀는 2남 1녀를 두었으며 가까이 막내 아들 내외가 살고 있어 한 달에 4회 정도 정기적으로 왕래가 있다. 생활비는 자신 스스로 파지를 수거하거나 환경미화, 허드렛일을 통한 수입으로 해결하고 있다. ‘몸이 아플 때 가장 서글프다’, ‘약이라도 사먹고 내 몸은 내가 소중하게 관리한다’에 가장 강한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오랜 기간 독거 생활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챙기고, 지속적인 자립에 건강이 중요함을 느끼는데 이 모든 자기 관리의 동기는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임을 강조하고 있다. ‘가족이나 친척이 남보다 못하다’, ‘가족과 친척에게 걱정만

<Table 5> Q-sample and Z-core according to types

Q-statement	Z-score		
	Type1 (n=16)	Type2 (n=8)	Type3 (n=8)
1. I always want to learn new things if opportunity given.	.3	-.2	-.5
2. It is a burden for me to meet new people.	-1.4	-2.0	-1.5
3. I usually enjoy spending time with seniors at the senior center or in the park.	.2	-.4	.6
4. I find volunteering worth doing recently.	.1	-.5	-.6
5. I go to church (sanctuary, temple) to go to heaven after death.	-.2	-.2	1.5
6. I've never needed others' help immensely.	-1.5	-.9	.0
7. I like myself dignified always.	-.1	-1.3	.9
8. There is financial hardship to live by myself.	1.1	.9	-1.7
9. When I am sick, it is the saddest moment.	1.8	1.2	.8
10. It seems that destiny or luck has been acting on my life.	-.5	-.1	-.3
11. I want to change my past if possible.	.4	-.2	.2
12. I'm sad(sorry) for my less remembrance.	1.2	1.9	-1.4
13. I don't like somebody calling me 'Grandma'.	-1.6	.3	-1.0
14. I usually prepare to death coming.	.9	-1.5	.1
15. I am annoyed and lose my temper at the slightest provocation recently.	-.7	.5	-.2
16. I am a poor woman who makes my family and relatives worry.	-.7	2.1	.7
17. Bereavement of husband was the most difficult period in my life.	.9	.1	-.2
18. My neighbors are better than my family and relatives.	-1.2	1.1	.9
19. I will refuse to live my children even if they ask to live with me.	.4	.5	1.6
20. Everything is conditional upon my mind.	.5	.3	.8
21. I don't go to the hospital regularly to take care of my health.	-1.4	-.4	-1.1
22. I commiserate on and counsel my relative over the difficulty.	.2	-.8	-.9
23. I attend the auspicious event and the tragic accident of my relatives.	-.5	-.3	.2
24. The word of "even if old, mind is youth" is for me.	.3	.1	.6
25. I may be chagrined if I die in the good life like this.	-.5	-1.0	-.1
26. I manage my body carefully with taking medicine, when I am sick.	1.0	-.6	.9
27. I hardly get enough sleep since the more thinking gets.	1.1	1.2	-.2
28. I am afraid that I would live too long.	1.7	1.9	2.2
29. I can marry again for my better old age if needed.	-2.1	-1.0	-2.1
30. I only find my life worth living when I visit my children or take care of grandchildren	.0	-.6	-.4

<Table 6> Items of type 1 which are items great or less than others

Q-statement	Z score	Average	Difference
14. I usually prepare to death coming.	.876	-.694	1.570
8. There is financial hardship to live by myself.	1.130	-.358	1.487
22. I commiserate on and counsel my relative over the difficulty.	.162	-.856	1.019
6. I've never needed others' help immensely.	-1.483	-.456	-1.027
13. I don't like somebody calling me 'Grandma'.	-1.646	-.376	-1.270
16. I am a poor man who makes my family and relatives worry.	-.651	1.399	-2.050
18. My neighbors are better than my family and relatives.	-1.225	1.015	-2.240

끼치는 한심한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에 강한 부정적인 견해를 지닌 자로서 독거 생활이긴 해도 자식들과의 일정한 교류가 있는 터라 가족이나 친척과의 유대관계가 긍정적인 편이고 자신 스스로 자립하는 생활에 대해 만족스러운 정서를 지니고 있다. 요즘음 들어 일거리가 많지 않고 수입이 적어 '경제적 문제로 혼자 살아가는데 불편하다' 는 현실적인 상황은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며 지속적인 일거리를 찾아 나서며 적극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결코 가족이나 친척에 짐이 되길 원하지

않기에 우선적으로 자신의 건강관리도 철저히 하며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건강을 챙기는 것을 소홀히 하는 편이다' 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독거생활 중에 자신 스스로의 자립을 강조하고, 자기관리에 신경을 쓰면서 아울러 주어진 현실을 적극적으로 극복하려는 삶의 적응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유형 2

이 유형의 독거 여성노인들은 대부분 가족 해체로 인해 독거생활을 시작하게 된 경향이 있으며 이들의 독거생활 기간은 평균 9년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8명의 독거 여성노인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나이는 평균 68세이며, 세 유형 중 60대 연령이 제일 많이 포함되어있고, 학력이 낮은 편으로 다른 유형에 비해 이혼으로 인해 독거생활이 시작된 대상자들이 많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Table 4>. 이 유형의 대상자들은 자녀와 친척과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로 연락이 두절되어 주로 은둔된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있어서도 다른 유형에 비해 좋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생활비는 다양한 형태의 일을 하여서 자비를 통해 마련하는 상태이다.

‘가족과 친척에게 걱정만 끼치는 한심한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너무 오래 살까봐 걱정이다’, ‘자꾸 잊어버리고 깜박거리는 기억력에 대해 서글픈 마음이 든다’, ‘몸이 아플 때가 가장 서글프다’, ‘갈수록 생각만 많아져 충분한 수면을 못하는 편이다’, ‘가족이나 친척이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등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가족이나 친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사고와 연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평소 닥쳐올 죽음에 대해 준비하며 사는 편이다’, ‘늘 당당한 내 자신이 마음에 든다’, ‘요새 같이 좋은 세상 죽으면 억울할 것 같다’ 등의 문항에는 강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면서 자신의 삶에 소극적인 자세로 체념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Table 5>.

제 2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은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중 가장 동의한 항목을 보면 ‘가족과 친척에게 걱정만 끼치는 한심한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Z값 차이=2.05), ‘자꾸 잊어버리고 깜박거리는 기억력에 대해 서글픈 마음이 든다’(Z값 차이=1.99), ‘할매 소리가 제일 듣기 싫다’(Z값 차이=1.62), ‘가족이나 친척이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Z값 차이=1.29)이었다. 타 유형에 비해 강한 반대의 의견을 보인 항목으로는 ‘평소 닥쳐올 죽음에 대해 준비하며 사는 편이다’(Z값 차이=-1.94), ‘늘 당당한 내 자신이 마음에 든다’(Z값 차이=-1.78), ‘약이라도 사먹고 내 몸은 내가 소중하게 관리 한다’(Z값 차이=-1.58)이었다<Table 7>.

유형2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자 가

중치가 높은 28번 연구대상자를 중심으로 Q-sorting 당시 면담 및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63세인 독거 여성노인은 남편과 이혼하면서 독거 생활을 시작하여 독거생활 15년째이다. 자녀는 2남 3녀를 두었으며 큰 아들은 사채로 도망 다니고 있고 딸은 이혼한 상태이며, 그나마 나머지 자녀들은 다른 도시에 살고 있어 자녀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는 상태이다. 몸도 안 따라 주고 사는 재미도 없어 ‘너무 오래 살까봐 걱정이다’, ‘가족과 친척에게 걱정만 끼치는 한심한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 ‘자꾸 잊어버리고 깜박거리는 기억력에 대해 서글픈 마음이 든다’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하기 보다는 그저 시간만 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요새 같이 좋은 세상 죽으면 억울할 것 같다’, ‘평소 죽음에 대해 준비하며 사는 편이다’라는 항목에 강한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면서 삶에 대한 애착이 없는 현실에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이대로 빨리 눈을 감고 싶지만 하다”는 표현을 쉽게 할 정도로 지금의 현실 생활에 부정적인 태도로 주어진 삶에 체념적인 경향을 띠고 살아하고 있다.

유형 3

이 유형의 독거 여성노인들은 독거생활 대부분을 정부나 지역사회 도움에 의존하고 있는 대상자들로서 이들의 독거생활 기간은 평균 10년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8명의 독거 여성노인들의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나이는 평균 72세로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종교를 지니고 있다<Table 4>.

‘너무 오래 살까봐 걱정이다’, ‘만약 자녀들이 함께 살자고 한다 해도 거절할 것이다’,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교회(성당, 절)에 다닌다’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현실에 순응하며 현실 수용하는 자세를 지니고 있다. 좋은 여건은 아니나 현재 생활에 적응하고 있어 ‘보다 나은 노후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재혼도 할 수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강한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고, 현실적으로 충족되지 않는 못해도 정부의 지원이나 지역사회의 보조에 대해 순응하는 자세로 ‘경제적 문제로 혼자 살아가는데 불편하다’는 표현도 없는 편이다. ‘새

<Table 7> Items of type 2 which are items great or less than others

Q-statement	Z score	Average	Difference
16. I am a poor man who makes my family and relatives worry.	2.084	.031	2.053
12. I'm sad(sorry) for my less remembrance.	1.873	-.118	1.991
13. I don't like somebody calling me 'Grandma'.	.283	-1.340	1.623
18. My neighbors are better than my family and relatives.	1.135	-.165	1.299
29. I can marry again for my better old age if needed.	-.996	-2.102	1.106
26. I manage my body carefully with taking medicine, when I am sick.	-.620	.969	-1.589
7. I like myself dignified always.	-1.263	.517	-1.781
14. I usually prepare to death coming.	-1.469	.478	-1.947

로운 이웃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 '자꾸 잊어버리고 깜박 거리는 기억력에 대해 서글픈 마음이 든다',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며 건강을 챙기는 것을 소홀히 하는 편이다', '할매 소리가 제일 듣기 싫다' 등에도 강한 부정적인 견해를 지니고 있는 대상자로서 홀로 늙어감으로 변화되어가는 자신의 처지에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오히려 주변에 의존적이긴 해도 자신의 처한 처지를 수용하며 현실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Table 5>.

제 3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가장 많은 점수 차이를 보인 항목 중 가장 동의한 항목을 보면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 교회(성당, 절) 다닌다'(Z값 차이=1.75), '늘 당당한 내 자신이 마음에 든다'(Z값 차이=1.44),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했던 적이 없다'(Z값 차이=1.19), '만약 자녀들이 함께 살자고 해도 거절할 것이다'(Z값 차이=1.12)이었다. 타 유형에 비해 강한 반대의 의견을 보인 항목으로는 '자꾸 잊어버리고 깜박거리는 기억력에 대해 서글픈 마음이 든다'(Z값 차이=-2.96), '경제적 문제로 혼자 살아가는 데 불편하다'(Z값 차이=-2.69), '갈수록 생각만 많아져 충분한 수면을 못하는 편이다'(Z값 차이=-1.33)이었다<Table 8>.

유형3의 특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자 가중치가 높은 30번 연구대상자를 중심으로 Q-sorting 당시 면담 및 관찰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현재 77세인 독거 여성노인은 남편과의 사별로 독거 생활한 지는 19년째이다. 자녀는 1녀를 두었으며 딸이 가까이 살고 있기는 하나 신체적 장애자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다. 본인도 생활비는 정부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교회와 자치단체의 도움으로 집안의 도배 및 시설물 수리와 필요 가구 등을 제공 받으며, 일명 "사랑의 집"이라는 단체를 통해 간식 및 식사도 공급받고 있다. 따라서 '주로 노인정이나 공원에서 노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긴다'는 데에 가장 적극적인 동의를 나타내고, 오히려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가족보다는 주변 이웃의 도움과 접촉을 유지하다 보니 '새로운 이웃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현재의 생활을 수용하며 순응하는 자세로 '자꾸 잊어버리고 깜박거리는 기억력에 대해 서글픈 마음이 든다'는 문항에 대해서도 강한 부정적인 태도

를 보일 만큼 자신의 노화되는 모습도 수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따라서 독거 생활의 현실적인 면을 수용하며 아울러 주어진 생활에 대해 소극적이긴 해도 순응하며 적응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적응 유형과 특성을 밝히는 데에 목적이 있다. Q 방법론의 원리에 따라 연구를 수행한 결과,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적응에 대한 주관적 구조를 나타내는 세 개의 유형을 발견하였다. 유형별 특성에 따라 제 1유형을 '현실극복 자립형'(independence type: overcome the reality), 제 2 유형을 '현실부정 체념형'(abandonment type: deny the reality), 그리고 제 3 유형을 '현실수용 순응형'(accomodation type: accept the reality)으로 명명하였다.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변화해 가는 자신과 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성공적인 노화란 한 개인이 노화되어 간다는 사실에 잘 적응해 나가는 것을 뜻하며(Jung, 1998), 그동안 기존의 많은 연구(Cho, K. W., 2002; Kim, Jung, & Ju, 2002; Park, Jae, & Oh, 1996; Park & Im, 1991)들에서 생활적응의 지표로 생활만족도를 제시하고 다루어왔다.

본 연구결과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적응 유형은 3가지로 확인되었으며, 각 유형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유형의 독거 여성노인들은 주로 일찍이 독거생활을 시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독거생활이 길었던 만큼 자립성이 강하고 적극적으로 취약한 현실적인 부분들을 극복하며 현실에 적응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나 친척과의 연대관계가 긍정적인 경향으로 그들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 계속적으로 스스로의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쓰며 자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대상자이다.

제2 유형의 독거 여성노인들은 주로 가족 해체로 인해 독거생활을 시작하게 된 경향이 있는 대상자들로서 학력이 비교적 낮으며, 자녀와 친척, 주변사람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이 은둔된 생활을 하면서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있어서도 좋지 않은 상태이다. 주로 주어진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

<Table 8> Items of type 3 which are items great or less than others

Q-statement	Z score	Average	Difference
5. I go to church (sanctuary, temple) to go to heaven after death.	1.539	-216	1.755
7. I like myself dignified always.	.886	-.557	1.444
6. I've never needed others' help immensely.	-.004	-1.196	1.193
19. I will refuse to live my children even if they ask to live with me.	1.580	.459	1.121
27. I hardly get enough sleep since the more thinking gets.	-.176	1.161	-1.337
8. There is financial hardship to live by myself.	-1.660	1.037	-2.697
12. I'm sad(sorry) for my less remembrance.	-1.431	1.533	-2.964

타내고 있으며 삶에 대한 애착이 없는 부정적인 태도로 삶과 자신에 대해 체념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제3 유형의 독거 여성노인들은 독거생활 대부분을 정부나 지역사회에 도움에 의존하고 있는 자들로서 자녀들과의 유대관계는 있으나 가족에게 기댈 만한 여건이 없는 형태의 대상자이다. 생활비와 주거생활을 주로 정부지원금과 교회와 자치단체의 도움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자신의 처지에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수용적인 자세로 주어진 삶에 순응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한편 독거 여성노인의 세 유형의 일치된 공통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너무 오래 살까봐 걱정이다'(No.28, Z=1.92), '몸이 아플 때 가장 서글프다'(No. 9, Z=1.26)에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새로운 이웃을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다'(No. 2, Z=-1.62)에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상과 같은 연구의 결과를 통해 독거 여성노인들이 지니고 있는 생활적응 유형은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다차원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생활적응의 유형은 명백하게 서로 구분되거나 배타적인 범주는 아니며 각 유형안에는 개인간의 차이점들이 있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자립생활이라 함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관리하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행동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적극적 의미를 갖는 것인데(Park, 2004), 본 연구에서의 경우 제 1 유형의 대상자가 이에 속한다고 본다. 제 1유형의 경우 남편과의 사별을 통해 독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대상자들이 주로 오랜 기간의 자립적인 생활을 통해 독거생활에 적응되어 있는 상태로 자신들이 원해서 혼자 사는 것은 아니나 독거 생활의 과정을 통해 오히려 주어진 생활에 적응되어져 있는 모습이다. '독거노인의 독거 가구의 형성 원인에 대한 연구'(Jung & Ha, 1999)에서는 독거 가구 형성 원인에 대해 "자녀의 불효 또는 자녀에 대한 부양기대의 포기, 자식에게 신세지고 싶지 않으니, 자녀가 없으니, 남편을 잘 못 만나서" 등으로 나타나 이러한 결과는 독거노인들이 자신들이 원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혼자 산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의 독거 여성노인들의 독거 형성 원인도 어쩔 수 없이 혼자 살게 된 것으로 귀착시킬 수 있긴 해도 현재 그들의 삶은 오히려 독거생활이 길었던 만큼 자립심이 강하고 적극적으로 취약한 현실적인 부분들을 극복하며 적응하고 있었다.

제 1 유형의 대상자들의 특징으로는 자립적인 삶의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자녀와의 연대관계가 긍정적인 상태인데, 이는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생활적응 조사 연구'(Park & Im, 1991)에서도 가족과 독립적으로 생활해 나가기를 원하며 자율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노인일수록 자녀에 대한 부양기대는

적어지므로 노인의 자립심은 생활적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제 1 유형의 대상자가 삶에 있어서 자립을 유지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자식들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함'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면들을 통해 제 1 유형의 대상자들은 태도면에서는 자립 지향적이거나 심리적인 면에서는 자녀 지향적인 면을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다.

또한 Cho(2002)의 '한국 여성노인의 노화적응이라는 연구'에서는 건강행위 실천이 한국 여성노인들의 노화적응의 핵심 범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행위의 근원에는 자식에게 폐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강한 염려가 있는 것으로 자식이나 타인의 삶에 짐이 되지 않으려는 의도가 강하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제 1 유형의 대상자들의 건강관리의 이유도 이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한편 제 1 유형의 대상자는 현실극복 자립형으로 취약한 현실을 극복하여 자립하고는 있지만 주로 경제적인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Park 등(1996)의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생활적응 연구'에서도 경제력이 생활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스스로 자립을 추구하는 생활적응 유형의 독거 여성노인들은 삶의 대해 긍정적 정서를 지닌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 특히 경제적 어려움은 그들에게 불편감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본다. 앞으로 독거 여성노인들에 대한 생활비 지원이나 사회적 지원서비스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계속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독신노인은 부부동거노인보다 가족체계 자원에 더욱 의존적이 되어 자녀관계나 고부관계에 대한 만족도와 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 및 사회적 적응도가 낮고 사망률이 높으며, 고립감을 더 많이 느끼고, 전반적인 생활만족 및 행복감도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는데(Park et al., 1996), 이는 본 연구대상자의 제 2유형의 독거 여성노인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제 2 유형의 대상자의 경우 가족해체로 인해 독거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의 독거생활에 부정적인 정서를 지니면서 생활에 부적응을 나타내고 있다. 독거생활의 전후과정의 부정적인 사건이 노인의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Park 등(1996)은 노인의 생활적응도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단독가구결정의 전후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한 바 있다.

제 2 유형의 독거 여성노인들의 인구학적 특성 중 다른 유형에 비해 학력이 낮은 편으로 확인 할 수 있는데, Kim 등(2000)의 '여성노인의 생활만족도 연구'에서도 노인의 교육정도가 그들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한편 제 2 유형의 경우 현재 생활에 대해 부정적이다 보니 주관적인 건강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상태로 자신이나 삶에

대해 체념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Park과 Im(1991)의 '단독가구 여자노인의 생활적응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건강이 노후적응에 중요하며, 건강이 나빠지면 자아존중감도 떨어져 생활적응이 낮아지므로 평소 건강관리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제 2유형의 독거 여성노인의 경우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그리고 사회적 다차원에서 관심이 요구되는 대상자로서 우선 은둔되고 체념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 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이러한 독거 여성노인들이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지원과 병원 이용에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취약 집단에 대한 중재가 개발되어야 전반적인 독거 여성노인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이라 생각된다.

제 3 유형의 경우 주로 주변 이웃들의 도움으로 취약적인 현실이지만 그들의 생활을 그대로 수용하며 살아가는 대상자들로서 이들을 통해 이웃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적응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삶에서 주변 이웃에 대해 의존적이므로 다소 소극적이긴 하나 생활적응에 있어서 긍정적인 정서를 지니고 있으며 주어진 삶에 순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제 3 유형의 구성원들의 인구학적 특성 중 다른 유형에 비해 1명을 제외하고 모든 종교생활에 참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종교생활에의 참여는 생활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에 영향(Baek, 2005; Kim, 2003)을 미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제 3 유형의 경우 특히 지원받고 있는 모든 생활의 현실에 대해 비굴하지 않고 다소 당당하기도 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여성노인의 노화적응'에 대한 Cho(2002)의 연구결과에서도 한국 여성노인의 경우에 자신들의 경제적 생산성 무능을 크게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으며, 자신은 늙었으므로 자식의 부양을 받아야 함을 어느 정도 당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결과와 같이 늙어 간다는 것을 수용하고 타인 의존적 일지라도 현실에 순응하는 모습이다. 따라서 제 3 유형들은 현실적인 것을 넘어서서 주관적인 복지감이 삶의 적응에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준다고 본다. 그러나 제 3유형의 독거 여성노인들도 취약적인 집단으로 독거 여성노인들이 지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지닌 대상자로서 홀로됨은 사회적 조직망과 사회참여에 따른 변화를 가져오며 다양한 지원체계를 갖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실제적인 지원체계와 사회적 지원 서비스가 앞으로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본 연구결과와 독거 여성노인의 세 가지 생활적응 유형을 Neugarten, Havighurst와 Tobin(1961)의 노년기의 성격 적응 유형을 통해 살펴보면, 제 1 유형의 대상자는 독거 후에

자신의 시간과 생활양식을 재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일상생활에 잘 적응해 가는 사람인 재구성형(the reorganizer), 제 2 유형은 신체적 쇠약과 감각기능의 퇴화와 같은 노화의 위협에 사로잡혀 타인과의 별다른 사회적 접촉 없이 폐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위축형(the constricter), 제 3 유형은 주변의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의존하며 보통 정도의 생활만족도로 살아가는 사람인 구원요청형(the succorance-seeker)에 분류 할 수도 있었다.

한편 독거 여성노인의 세 유형의 일치된 공통적인 특성을 보면 노화됨으로서 오는 신체적인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독거 여성 노인들의 경우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건강유지를 위한 의료서비스 및 건강관리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 본 연구결과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적응에 대한 주관성 구조는 3유형(현실극복 자립형, 현실부정 체념형, 현실수용 순응형)으로 구성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독거 여성노인의 유형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현실극복 자립 독거 여성노인'은 주로 일찍이 독거생활을 시작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독거생활이 길었던 만큼 자립성이 강하고 취약한 현실적인 부분들을 극복하며 현실에 적응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나 친척들에게 폐가 되지 않기 위해 계속적으로 자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대상자이다. '현실부정 체념 독거 여성노인'은 주로 가족해체로 인해 독거생활을 시작하게 된 대상자들로서 자녀와 친척, 주변사람들과의 접촉이 거의 없이 은둔된 생활을 하면서 주어진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삶과 자신에 대해 체념적인 경향을 띠고 있다. '현실수용 순응 독거 여성노인'은 독거생활 대부분을 정부나 지역사회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자신의 처지에 부정적인 견해보다는 수용적인 자세로 주어진 삶에 순응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적응 유형은 그들이 지닌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의하여 영향을 받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독거 여성노인의 간호중재시 각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중재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적응 유형에 대한 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지닌다.
 -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적응 유형의 발견은 생활적응 유형별 구분을 가능케 함으로써 대상자의 개별적 간호중재 및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해 줄 수 있다.

-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적응 유형의 발견은 여성노인의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인을 확인하는 근거를 제공하는 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 연구결과 제시된 진술문들은 한국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적응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검증하는 지속적인 연구에 이론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본 연구결과는 소수 취약집단으로서의 독거 여성노인들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효용성이 높고, 독거 여성노인의 간호중재 및 서비스 관리자 및 생활지도자 교육에 대한 정보와 방향을 제시하는데도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 독거 여성노인의 생활적응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국 독거 여성노인을 위한 생활적응 측정도구 개발을 제언한다.

References

- Baek, S. S. (2005). *A study of the model construction of the quality of life in single aged wo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Seoul.
- Cho, K. W. (2002). The study on the degree of life-satisfaction of the Female Single Aged. *J Welfare, 17*(1), 85-125.
- Cho, Y. S. (2002). Experienced adaptation by the female aged to aging in Korea-approach with a grounded theory-. *J Gerontol Nurs, 4*(2), 143-152.
- Jung, H. J. (1998). Relationship of stressors, resources, and appraisal with psychological adjustment of female elderly. *Korean J Res Gerontol, 18*(3), 74-89.
- Jung, M. J., & Ha, K. N. (1999). The case study in the process of being the aged household of living alone as their life course-focused on the aged women in Ulsan. *J Human Ecol, 1*(1), 107-125.
- Kang, Y. J. (2003). How do Korean elderly women adapt to old age?: Themes and sources of meaning in their later lives from life stories. *J Korean Home Econ, 41*(3), 131-146.
- Kim, K. T., & Park, B. G. (2000). Life satisfaction and social support network of the elderly living alone. *Korean J Res Gerontol, 20*(1), 153-168.
- Kim, S. H., Jung, J. Y., & Ju, Y. A. (2002). A study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household. *J Korean Soc Women's Culture, 9*, 145-65.
- Kim, T. H., Lee, D. S., & Jung, H. J. (2000). Related variables of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in Chonbuk-do province. *Korean J Gerontol, 20*(2), 49-70.
- Kim, Y. S. (2003). *Study on the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of the o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Eui University, Busan.
-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6). www.nso.go.kr
- Lee, G. A. (2002). A grounded theory approach to the adjustment process of the institutionalized elderly. *J Korean Acad Nurs, 32*(5), 624-632.
- Lee, H. S. (2006). Understanding the life of Korean elders through qualitative research-focusing on understanding the life of Korean female elders. *J Welfare, 31*, 73-99.
- Lee, M. S. (2004). Factors influencing life satisfaction the elderly living alone. *J Korean Acad Adult Nurs, 16*(1), 17-26.
- Neugarten, B. L., Havighurst, R. J., & Tobin, S. S. (1961). The measurement of life satisfaction. *J Gerontol, 16*, 136-142.
- Park, K. R., & Im, C. H. (1991). A study on the life adjustment of elderly women living alone or with the spouse. *InJe J, 7*(1), 301-332.
- Park, K. R., Jae, M. K., & Oh, C. O. (1996). Comparative study of life adaptation of elderly according to the marital status with a focus on elderly women living alone and with the spouse. *InJe J, 12*(2), 637-656.
- Park, S. Y. (2004). *Influence on life satisfaction of elderly home resi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Poter, E. J. (2005). A phenomenological perspective on older widow's satisfactions with their lives. *Res Aging, 27*(1), 80-115.
- Stephenson, W. (1982). Q-methodology, interbehavioral psychology, and quantum theory. *Psychol Record, 32*, 235-248.
- Yoo, G. S. (2005). Korean old women's problems and the disputed points. *ChungJu National College Sci Technol, 26*(3), 165-194.